

# 박창옥 선생

(12)

박창옥 선생은 1911년에 원동변강 연해구  
 뱀시예르 구역 크라노기노시에서 탄생하시었다.  
 고향 도시에서 1935년에 사범전문학교를 나오시고  
 원동으로 북하의 한인 강제이주로 인하여 까자흐  
 공화국 크술물타 시에서 1939년에 사범대학을 나오  
 시었다. 대학을 나온후 (일연)고공에서 일년간 여문  
 학교원으로 일하시고, 다음 1940-1942년 사이에  
 는 크술물타 주 철리구역 구량위원회 선전서점부장  
 으로 2년간 일하시었다.

1942년 8월에 소련군에 추모되어 모스크바나하  
 나노브 명령 경찰 학교에서 일년간 공부하시었고 1943  
 년에 경찰병으로 중국 만주에 파견되어 일본 광둥군  
 동향을 경찰할 임무를 맡았다.

박창옥 선생은 소련 국경우버레 경찰병들의 호응에 의하여  
 노란 국경은 용이하게 넘어갔으나 동서사방이 생소한 하  
 향 땅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어야 인간출어나 만나  
 고 그에서 어떤 비밀 자포를 수집하려 하였으나, 국경의  
 대 삼림 울속에서 일본 반함정 경찰대가 어느쪽  
 에서 나타날지 알로리가 없어 일일간 1킬로에하  
 도 돌파할수없었다. 그러던 도중 제3일에는 일본  
 군에게 발견되어 후적당하게 시작되었다.

삼림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적으로 인정  
 되고 일본 반함군이 되어 보였다. 그도 당시 일본 광둥군  
 반함정부에서는 조선사람들을 총집하여 나무꾼이나 다  
 른 어떤 농민으로 각장시켜 노란국경 국경 삼림속에 배

취하여 놓았으며, 또 산속에서 돼기 산전이나 가라봉  
 사 짚어먹고 사는 화전민 부분들을 대독하여 자기들의  
 특별한 일정으로, 연락군의 루트를 사용하여 왔던 것이다. 당시  
 들에 대해서는 화전민 집은 만나도 만나지 못하여 들어 갈 수 없  
 었다. 박선생은 3월간이나 추격당하고 또 추격대원들  
 은 때로는 전방 무복들 사격을 하는바탕에 왼팔을 부상  
 당하였다. 박선생은 불태건강체로써 끝은 시절에 운동이  
 나하든 몸으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였다. 그러나 3월간  
 이란 긴시간도 추격당하며 반쯤 굶어 살아온 환경에서  
 인제는 기진맥진하였다. 박선생은 인제는 더 앞으로 갈 수 없  
 었다. 때문에 산기슭 아래에 보이는 화전민 세호동리를  
 발견하자 그 즉시에 걸음을 멈추고 풀속에 들어 누버 속이  
 허기 지고 밤이 오기만 기다리였다. 맑은 밤이 되자 박선생은  
 산기슭 한쪽에 아래방 물정에가 주인을 찾군" 길가는 손님이  
 허기 많 자고 가는 것이 이따나군" 허기를 받은 밤에 들어 갔다.  
 밤에 들어가자 박선생은 벌써 그집에 두사람이 들어와 있는것을  
 발견하자 박선생의 생각에는 인제는 꼭 일본놈들에게 쫓겨  
 못하고 붙잡혔다 생각하였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주인은 저녁을 먹으라 밥상을 들여왔다. 밥상을 받은 익  
 사를 하는 도중 박선생은 그 먼저 들어온 두사람중 한  
 사람은 어디선가 꼭만<sup>한</sup> 생각이 났다 저녁식사를 다  
 한다음 박선생은 다시 생각하니, 그 사람이 모스크바  
 주변 삼리동 나리마노브 병영 경찰학교 근방에서 한  
 번 원사없이 겨즈르 지나가는것을 본 생각이 났다. 박  
 선생은 속생각으로 "너도 나같은 임무수행으로 위하여 여기  
 와 다니노나" 하는 생각하였다. 박선생은 두사람중 한  
 사람이 "너도 나같은 불이다" 당신의 모스크바에서  
 오신 사람이 아닌<sup>한</sup>하군. 그러자 그사람은 "복음베르부

정하다가 박선생이 자기내막을 털어놓으니, 그사람은 실은  
 하였다. (박선생이 우연하게 사선에서 만난 그 사람은  
 박길남씨(조선이름 박길남), 최후 조선의 해방된  
 후 인민군 공병국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이다)  
 박길남 선생은 나라야노브 명칭 학교를 나오곤 벌써  
 일제전에 만주에 나와 공작하고 있었다. 박길남 선생은  
 박창욱 선생처럼 실속있는 한인 빨간지산 부대 정찰병을  
 만나 협동 공작을 해야되지, 그렇게 혼자다니다니는 실패한  
 당할수 있다하면서, 자기가 아주 일심적한 사람으로서  
 하여 주겠단 하였다. 그렇게 말하자 밖에 나갔던 사  
 람이 들어 오자 인사를 식히었다. 그 사람은 유명한 한  
 인 빨간지산 부대 영장인 최현장군 부대 정찰과장이었다.  
 그의 성명은 김철 (최후 조선의 해방되지 조선인민군  
 105단 부대 부장 유정수 사단장의 총입으로 죽어선사  
 람이다) 인사를 식힌후 박길남 선생은 김철 선생을  
 만나라 하시고 박창욱선생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음두  
 리면서. 이 선생도 정찰업무를 하고있는데서 보신 분  
 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다음 박길남 선생은 아주 정중  
 하게 박창욱 선생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이곳에  
 서 성과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이 지방간  
 벽들에게 길이 배리를 막고 사업하여야 실속이 없소"  
 하면서 박길남 선생은 김철선생에게 부탁하기를, "아라  
 고 당부만이라도 김철선생이 이 박선생을 잘 돌봐 주시  
 야 하겠소" 하였다. 이 말이 있은후 박창욱 선생은 김철  
 선생과 아주 깊은 인연에서 다수 경우 같이 함께  
 공작하면서 2년간이란 긴 세월을 그 쓸쓸하고 무서  
 -무서한 나날을 보내면서 권투업무를 수행하여 후에

용 무전기로 자기 북쪽에 하전하곤 하였다. 기간에  
 일제 군대가 제법 많이 주둔한 영결사에서 매일 들쭉  
 서 동정, 해풍, 조양현, 옥단강, 논밭에까지 항상 밟힐  
 성병의 안포에 의하여 돌아다니며 사업하시었다.  
 한번은 1945년 5월 초순에 초만 곡경 도시인 훈춘  
 시에 다시 왔다가 일본놈 정찰병에게 적발되며 일행  
 3명은 추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놈은 일명이고 일  
 행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놈은 그렇게 대머 놀고 추  
 격하지 못하면서 도중 3명의 거동과 동향이 남 삼괴에서  
 점점 가까와 지러 하던, 이 세명은 쫓겨짐을 비하르게  
 하여 간격을 늘렸다 그러나 저녁이 되며 해가 넘어가게  
 되자 일본놈은 길가 가까이 있는 파출소에 들어가 부장 군인  
 한명을 더 보충하였다. 이러한 사이에 활항목 성병 일  
 행은 방향을 비껴서 약 십리가량 간격을 늘려한 집주  
 의 되었다. 그러나 저녁이 지나가고 밤이 시작되자 외  
 흥 산골길은 아주 캄캄 하게 되었으며, 아주 고요하  
 여 먼곳의 인기척도 들려오곤 있었다. 때문에 먼곳에서  
 여러 명의 추격자들이 비바른 걸음치로 떨어오는것이  
 확연한데다 그들은 캄캄한 숲길속에 대하여서는 백목  
 사경을 헤치며하였다. 활항목 성병 일행은 큰길을 끝으로  
 잡아가기는 하나 큰길에서는 걸지 못하곤 거기에서  
 약 200-300미터 떨어진 옆 초목들의 들어선 새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장밤을 가고, 가다가 일  
 행은 백이 전하여 좁러 길은 습곡속에 들어가 좁  
 휘여 가려곤 걸심하였다. 이리하여 추격하는 놈들은  
 그 어두운 숲을 또다시 망목사경을 하였다.

이때에 박창욱 선생은 원팔에게 작지를 증상당  
 하였다. 이때에 같이 가던 율령 증후들로 만악정무를 위  
 하여 항상 가리던 단식은 약흥에서 고약을 꺼내어 바르고  
 붓대로 싸매었으나 그 아픔은 기가 막혀었다. 박선생은  
 오일전에 전후입목 율령증역시 원팔을 북상당하여 약  
 오기일과 친을 했었는데 이제 더부러 그 팔 어깨 작지  
 증상을 당하곤 피까지 땀이 흘러곤 보니 년제는 백이  
 진하여 더 움직일 수 없었다. 박선생은 "이것이 자기의  
 말대로 생각하면서 립철 선생하고 알뜰하기를 언대  
 는 자기를 여기에 남겨 놓은 강인우 증후와 같이 무전기  
 를 가지고 정찰병 후조장소까지 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립철 선생은 그것은 전혀 안되는 소리라고 하  
 면서 "죽으면 사명의 같이 죽어 드 박선생을 이곳에 떨  
 겨 두곤는 불간라" 하면서 "우리가 없으 갈터이니 근심  
 말라고 하였다. 박선생은 어찌에 흥으로 눈물흘리며 오  
 년전에 박길남 증지가 말하러던 것을 아주고 암게 회생하  
 였다. "우리의 사업에서 지방사람이나, 빨간지산 부대사  
 람들과 긴밀한 관계가 없이는 실패를 당하곤 라오" 하던  
 그 말뿐, 또 그가 친히 연목 위하여 주고, 노게 하여곤 립철씨  
 참 친형보다도 나은 사람,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언제런지 잊을수 없는 차주 팔매에 가입된 친형,  
 아니, 그보다도 더 값있는 존재란것은. 참 그날 저녁에  
 립철씨와 강인우씨는 박창욱 선생을 변갈아 없은 35  
 걸로 정찰병 증후 후조까지 왔는데, 그이후날 북하면  
 일주일간 두산림은 박선생을 케송입이 쓰러진증까지  
 호송하여, 쓰러진증 후배대에 원제하여 죽은 자기를

은 자기 빨간 머리남 복대네 들어가 전후업무를 수행하였다.  
 필자는 1957년 여름에 항공사령부 군사위원으로 일하고 있  
 을시 권철 105 단크사단장을 무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나의 사무실 (항공사령부 사무실은 바로 105 단크  
 사단 옆에 놓여 있었다) 에 들어가 이야기 러 이야기  
 하다가 군사위원중지 박창욱 선생을 알아듣고하고 물었다  
 권철 중지는 내가 보던에서 온사 랫인을 알았기때문에 그렇게  
 물었던것이다. 그때야 자기들이 박창욱선생과 같이 정찰  
 업무를 수행하던 이야기, 부상된 박창욱 선생을 사선으로 부어  
 업어 거내며 살려보며, 소만극경까지 호송하던 이야기를 하  
 였다. 당시 박창욱선생은 사상검호에 걸려 북부상 직에서 철적  
 되어 마동 세멘은 공장 지배인으로 감직 되었을 때다. 권철  
 중지는 박창욱 선생에 대하여 아주애석하게 생각한이라  
 말하기를 << 그래든 박창욱 선생만은 꼭 다시 노생할것이로기  
 하였다.

박창욱 선생이 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장으로 재설시 그의  
 사업적 활약로 깎지만 위상으로 대단하였다. 박 선생은  
 원래 한인 사전, 사리를 펴내시고 후년간 당계를 선전  
 선전 계층에서 일하신 분으로, 선생이 음변과 해설유  
 만이 풍부하여 청강 관공들을 마유대로 지배하였다  
 한변은 조선인민군 농정회측 선동-선전부광 물건 함  
 노강의, 박창욱 선생의 강의를 듣고 만하리를 참출중한  
 음변과 해라 하네, "보려에서 조선인민에게 무상으로 선  
 사한 5억 루블의 외, 50만톤 밀가루와 50만톤 축발유를  
 권리태하여 - 그 위발유 총을 얻어어 놓으면 신리국 시에서  
 평양시까지 700 킬로 거리를 3회이상 연결할수 있다 -  
 고 하였다. 북한인민하고는 누구나 다 박창욱 선생은 존경

하였는데 다만 한사람만 - 반소 불지거주, 반당분리  
 김창익이 반 박창욱 선생을 미워하면서, 박창욱 선생  
 의 사상검열에서 회반을 시 사회 전당대회에서 호를 할시  
 무박계적으로 활동 선전지라고, 보통 어였다 김창익이든 친  
 일파로서 노련은 아주 미워하였으며, 노련에서 나온사람들은  
 아주 미워하였다. 많은 재료를 조각하여 사상검열시 많은  
 간부들을 활적지던 한 리를 김창익 자네도 반당 분라분라  
 반소분자로 붙여 중앙당 선전부장 직부에서 활적하여 지방  
 에 나가 유형사리를 하다가 죽은 받았다.

박창욱 선생은 1956년에 중앙당에서 나와 마중세  
 멘느 공작으로 강적되어 유형사리를 하다가 전선에서  
 부상당한 비열로 신유하다가 다시 노병 리지 못하고 1957  
 년에 남구세의 연명으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박창욱 선생은 노련군 정찰병으로 중국 만주 일부를 들어  
 다니며 일본 광동군 출신필아래에서 2번 공상을 당하  
 면서도 정찰병의 임무를 충실히 하였기 때문에 노련정복로  
 부히 "노련 조국 전쟁 영예" 훈장 1급과 2급을 받았으며  
 삼여개의 메달을 수여 받았다. 그 외에도 북한 경복로부  
 리도 "극기 훈장", "자유 독립 훈장"라 많은 메달을 수여 받았  
 다. 박창욱 선생이 정치적으로 처당당한후부터 기하가 족  
 족 행방 불명이 되었다. 그 먼저 노련에 공부하러 들어왔던  
 아들 딸 2남 1녀는 노련시 조선에서 살고 있다.

1999. 11. 12 일 최영권 씀.